

The Winter's Tale에 나타난 聖書的 影響*

權 英 根**

I

Shakespeare의 말기 작품들은 나머지 작품들과는 변별되어 "The Romances" 혹은 "The Last Plays"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가 인생 말기에 궁극적으로 깨달은 인간 이해의 사려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말기 작품들은 작품 속에 표출되어 나타나 있는 풍부한 종교적 언급들과 Shakespeare 작품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神들(gods)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석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종교적 내용이 풍부한 말기 작품들의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신(gods)과 여신(goddesses)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교적 세계이다. 이교적 배경들은 당시 극작가들이 연극에서 어떠한 종류의 신성모독적인 언급들도 금지하는 1606년의 "신성모독금지령(Act to Restrain Abuses of Players)"에 의한 고발 위험 부담을 피하면서 성서적 주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¹⁾ 말기 작품들도 그전의 작품들처럼 표면적으로는 먼저 인간의 세속적 세계와 재난들과 그 위업들을 다루고 있다. Peter Milward는 Shakespeare가 인간사에 대한 깊은 관심에 있어서는 Chaucer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이 작품들은 세속적 세계와 그 언어 그리고 인간사를 형성하는 필수적 요소로써 종교적으로 의미심장한 인간 행위들을 극화하고

* 본 논문은 1991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Tokyo : The Hokoseidō Press, 1973), pp.213-214.

"The obvious reason is the passing in 1606 of an Act to Restrain Abuses of Players, which prohibited stage-players from using the names of God, Jesus Christ, the Holy Ghost, or the Trinity, profanely or in jest... Apart from Macbeth... all the plays after the date (1606) have a pagan setting. A deeper reason, however, is perhaps to be found in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the dramatist... not that he was moving from Christian to pagan, but that he found it more convenient in the circumstances of his age to express his Christian vision indirectly in terms of classical mythology."

2) Peter Milward, *Christian Themes in English Literature* (Tokyo : Kenkyusha LTD., 1967), p.9.

있다. R. M. Frye의 지적대로 “이런 세속적인 영역내에서도 Shakespeare는 때때로 그의 작품에 독특한 인물들과 상황을 부여해 주는데 기여했음직한 신학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Within this secular sphere he at times introduced such theological material as might contribute to his presentation of particular characters and situations).”³⁾ 이교적 배경 속에서도 기독교적 요소는 정치나 인간 관계와 같은 세속적 관심들과 동일하게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Shakespeare는 그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평범한 세속 세계, (little world of man)” (*King Lear* III.i. 10)가 지닌 각양의 측면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요소들을 그의 말기 작품들에 분명히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The Winter's Tale*은 말기 작품으로서 신학적 언어와 인물 그리고 神의 출현 등 종교적으로 풍부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으로 20C 초까지만 해도 작가의 비극적 상상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비극이 되어야 할 제재가 희극으로 바뀐 작품, 즉 Shakespeare가 뛰어난 비극들을 다 쓴 후 그의 인생 말기에 접어들면서 권태 속에서 쓴 대단치 않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적절한 동기 부여의 결여로 인한 비현실성 때문에 현대관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이 작품은 그 구성이 느슨하고 심리적 사실성의 무시 때문에 작품 전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여겨 연극으로 보다는 한편의 詩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사실 이 작품은 작중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진하여 심리적으로 사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극 전체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C 중엽 이대로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어 Shakespeare의 인생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완숙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 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 작품에는 그의 전체적이고 고담적인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내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적 요소, 험거운 구조, 개연성의 부재 그리고 사건, 인물, 극적 행위 상의 동기와 일관성의 결여 등도 Shakespeare가 삶에 대한 고유하고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게 된 것이다.

Shakespeare는 이 작품에서 그의 이전 작품에서와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다. Macbeth, Hamlet, King Lear, Othello 등 거물들의 통절한 비극 후에 그가 보인 관심은 그러한 위대한 영웅들의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비극적 몰락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 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해주는 신비하고도 초자연적 힘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심 속에서 창작한 이 작품에서도 그의 초절적 인생관을 읽을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시기와 중요에 찬 주인공이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 죽음의 세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는 인생의 신비감을 제시하고 있다.

*The Winter's Tale*과 그가 원전으로 사용한 Green의 *Pandosto*는 유사점과 더불어 주제 그리고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Pandosto*에서 Hermione에 상응하는 인물인 Bellaria는

3) R. M. Frye, *Shakespeare and Christian Doctrin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44.

실제로 죽음에 이르고 Pandosto는 딸을 다시 만났을 때 딸인지 모르고 그녀에게 품었던 욕정으로 인한 죄의식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하게 된다. 그러나 *The Winter's Tale*은 비극으로 시작되지만 버려진 딸 Perdita 그리고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Hermione가 Leontes와 재회하여 화합하고 용서하는 희극으로 끝나고 있다. 원전의 변환을 통해 비극이 희극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한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Hermione의 재생인데 그녀의 16년 후의 재생은 이 작품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허용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The Winter's Tale*의 주제, 구성, 인물, 언어, 기교, 비유, 상징 등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성서적 영향과 그 양상을 해석학적으로 탐구하여 이 작품의 미학을 추구해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학작품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종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정신적 양식일 수 있다. Shakespeare가 기독교 사상과 극전통의 유산 속에서 창작활동을 했다면 그의 작품 속에는 적어도 성서적 주제의식과 신학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깔려 있으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 속에서 신학 사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Shakespeare가 이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사상이라고 믿는다. T. S. Eliot가 "Religion and Literature"에서 "문학 비평은 분명한 윤리적, 신학적 관점에서 나온 비평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 (Literary criticism should be completed by criticism from a definite ethical and theological standpoint.)"⁴⁾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필자는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석과 분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Shakespeare의 시대는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신학사상과 기독교적 인문주의 사상이 아직도 흥미하고 있었으며 Shakespeare 자신도 당대의 신학 및 철학 사상과 성서의 지대한 영향 속에서 창작활동에 임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작품에 나타난 주제, 구성, 인물의 성격, 갈등구조 그리고 상징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작품 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삶의 본질과 내면에 깔려있는 숨겨진 사상을 표출해 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The Winter's Tale*의 작품세계와 그 문학성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보다는 그 방법론의 한계성 때문에 부득이 한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II

*Othello*와 *The Winter's Tale*은 구조상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The Winter's Tale*은 새롭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끝나고 *Othello*는 절망적인 죽음의 분위기로 끝난다. Shakespeare는 *Othello*와 *Macbeth*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과정을 그렸고 *King Lear*에서는 그 초점을 죄 자체보다는 죄로부터의

4) T. 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ed., by G. B. Tennyson (Grand Rapids, Michigan :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 21.

정화과정에 두었다. 그러나 말기극에서 그의 관심은 한 죄인이 겪는 극한 내적 갈등이나 고통보다는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옮겨졌다. 악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 죄와 고통간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인 후 이제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 등 비극적 경험의 극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The Winter's Tale*은 대체적으로 IV막에서 Chorus로 등장하는 Time의 대사를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Old Shepherd는 Clown에게 “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나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보았다. (Thou met'st with things dying, I with things new-born)” (III. iii. 112-113)라고 말한 것처럼 극의 전반부는 죽음에 대해서 후반부는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전반부는 Leontes가 Hermione에게 품은 질투로 인한 비극적 결말로 구성되어진 겨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전반부의 비극적 사건이 두 젊은이 Florizel과 Perdita의 역할에 의해 행복한 결말로 전환되고 있는 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반부의 절정은 “trial scene”이고 (III. iii.) 후반부의 그것은 “statue scene” (V. iii)인데 양자가 모두 Hermione에 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비극과 희극의 대칭 구조 속에서도 비극적 경험과 희극적 경험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총체적 경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극의 전반부는 Leontes와 Polixenes가의 정분에 대한 Sicilia와 Bohemia 양국의 신하들 간의 대화로 시작된다. Camillo가 “신들이 두분 사이의 정분이 변치않도록 기원, (The heavens continue their loves!)” (I. i. 31) 하자 Archidamus는 “그 우정을 변하게 하는 어떤 음모나 문제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re is not in the world either malice or matter to alter it)” (I. i. 33-34)고 응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극의 발전 즉, 사랑으로부터 죽음으로 물고가는 질투심의 발전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대사의 내용이 반어적으로 들린다. “쌍둥이 양 (twinn'd lambs)” (I. i. 67)으로 비유되는 Leontes와 Polixenes간의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던 순수한 우정은 Leontes가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들의 우정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신하들의 염원과는 달리 왕비 Hermione이라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금이가게 된다.

Polixenes는 두 사람 간의 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nd our weak spirits ne'er been higher reared
With stronger blood, we should have answered heaven
Boldly 'Not guilty,' the imposition cleared
Hereditary ours.

(I. ii. 72-75)

우리가 계속 천진난만하게 살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성장해서도
변치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하늘에게 '죄가 없다'고
강변했을 텐데.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원죄까지도
깨끗해졌을 텐데.

Polixenes는, 두 신사가 Mamillius의 천진성에 대해 강조했듯이, 자신과 Leontes의 어린 시절

에 천진난만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순수성을 계속 유지했다면 원죄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어서 Polixenes는 그들의 순수성은 여자에 의해 "유혹 (temptations)" (I. 11. 77) 받았다고 함으로써 창세기에 기록된 이브에 의한 아담의 타락을 연상시켜 주고 있다. 이 극은 이와 같이 Milward의 지적대로 원죄라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⁵⁾ 이 극의 서막에 이와 같이 성서와 마찬가지로 순수성의 상실로 인한 원죄 그리고 그로 인한 자범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Shakespeare의 제산된 의도로 볼 수 있다. 요컨대 Shakespeare는 이 작품에서 다른 말기 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성서적 주제를 부각시켜 형상화 하고자 한 것이다.

극의 초반에 등장하는 Leontes는 비록 어린 시절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건전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충만된 행복한 상태에서 갑자기 동기가 미묘한 질투심에 빠진다. 그는 Hermione와 Polixenes사이의 관계에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순 (innocence)의 상징인 Mamillius도 이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는 갑작스럽고 광적인 질투심 때문에 비 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변해 간다.

Affection, thy intention stabs the center !
Thou dost make possible things not so held,
Communicat'st with dreams — how can this be?
With what's unreal thou coactive art,
And fellow'st nothing.

(I. ii. 139-143)

욕정이어! 너는 사람의 심령을 무찌르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허황된 꿈과도 어울리게 하니, 그럴수가?
욕정, 너는 헛된 그림자와 작용하고
현실에 없는 것과도 짝을 짓는구나.

그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여 이와 같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욕정에 대한 표현은 아내에 대한 비현실적인 의심과 그 자신의 질투심에 찬 사랑의 합작품이다. 그의 의심은 Camillo의 지적대로 "그 말씀은 되풀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설령 사실일지라도 부정 그 자체나 마찬가지로 깊은 죄악이 될 것이다. (to reiterate were sin as deep as that, though true)" (I. ii. 283). 그의 눈은 편견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진실되고 이성적인 Camillo의 정당한 충고도 거부한다.

Leontes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 놓고 Camillo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5) Peter Milward, *Shakespeare's Other Dimension* (Tokyo : The Renaissance Institute, 1987), p.107.

I have trusted thee, Camillo,
 With all the nearest things to my heart, as well
 My chamber-councils, wherein, priest-like, thou
 Hast cleansed my bosom, I from thee departed
 Thy penitent reformed.

(I. ii. 235-239)

캐밀로, 나는 지금까지 가슴에 품은 은밀한 비밀이며
 사사로운 일까지 경에게 믿고 털어 놓았소.
 그때마다 경은 신부(神父)처럼 내 마음을
 씻어 주었소. 그래서 나는 경을 만나기만
 하면 뉘우친 참회자가 되었었소.

Leontes는 지금까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준 Camillo에게 이번에는 질투심 때문에 괴로운 자신의 죄악에 찬 마음을 고백하고 위안을 얻고자한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Leontes는 지금까지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회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신부', '뉘우친 참회자' 등 신학적 언어를 죄인인 Leontes의 입을 빌어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Shakespeare가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죄 자체는 물론이고 죄로 인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Leontes는 자신의 내적 문제를 털어 놓고 Camillo에게 Polixenes를 살해할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Polixenes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Camillo 는 고민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olixenes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anointed king) (I. ii. 358)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표현은 왕에 대한 신성을 의미하는 성서적 언어이다.⁶⁾ 특히 성서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역사 16 : 22 시105 : 15)고 경고하고 있다. 갈등 속에서 Camillo는 "구리에도 돌에도 양피지에도 그런 사례 (기름 부은 왕을 살해하고 잘된 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Nor brass, nor stone, nor parchment bears not one") (I. ii. 360)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때 "parchment"는 성서를 (딤후 4 : 13)지칭하는 것이고 Camillo는 성서를 읽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 작품은 이교적 배경 속에서도 성서적 언어, 교리, 교훈 등이 침잠되어 있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불신과 비 인식은 다시 한번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 Leontes는 가장 위험한 "오염된 생각 (diseased opinion)" (I. ii. 297)에 사로잡히게 되고 Camillo의 정직성과 충성심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Leontes에게 있어서 Camillo는 Lear에 대하여 Kent가 진실로 충성된 신하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6) 성서에서 기름부움에 관한 내용은 삼상 16 : 6, 24 : 6, 10, 26 : 9, 16, 그리고 삼하 1 : 14, 19 : 21 등에 여러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

(마5 : 10)고 설과했듯이 Camillo는 의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Leontes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으로 믿었던 Camillo의 불충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Nothing"을 연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신뢰를 거절한다 (I. ii. 292-296). 중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 극의 전반부에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Leontes의 이같은 최악의 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모든 죄가 이성적 원인에 기초를 둔 동기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동기가 이 작품에 결정적 단점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한 성서 신학적 접근의 당위성을 높여준다고 판단된다. Shakespeare의 의도는 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있었던 것이다. 이점은 Polixenes에게 속히 Sicilia를 떠나라고 권고하는 Camillo가 그 이유를 묻는 Polixenes에게 하는 대답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지느니 보다는 이미 그져 되어버린 결과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I know not : but I am sure 'tis safer to avoid what's grown than question how 'tis born") (I. ii. 432-433). 즉, 원인 보다는 결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Leontes가 신탁을 부정한 직후 Mamillus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태도에서도 잘 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Shakespeare가 말기극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죄 자체라기 보다는 죄로부터의 구원, 용서, 화합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작품에서도 동기부여가 미진한 Leontes의 죄는 그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설정된 죄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를테면 Shakespeare는 중세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七罪原(Seven Deadly Sins) 중 하나인 "질투"를 Leontes에게 적용하여 그의 구원 과정과 그 결과를 이 작품에서 형상화 하고자 한 것이다.

Leontes는 맹목적 질투로 인한 걱정의 노예가 되어 "설 수가 없다 (no rest)" (II. iii. 1). 이같은 증상은 내적 불안정의 결과로 나오는 육체적 증상으로 죄악을 범한 Macbeth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과 같이 Leontes도 평안이 없다. 정신적 맹목성 때문에 Leontes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투옥된 Hermione가 차라리 분살되기를 원한다.

Say that she were gone,
Given to the fire, a moiety of my rest
Might come to me again.

(I. iii. 7-9)

왕비가 죽었다든지
분살 했다면, 마음에
다소 평안이 회복될지도 모르지.

아내가 차라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Leontes의 심상은 이미 이성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단단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지금 사랑의 상징이자 열매

7)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London : R & T. Washbourne Ltd, 1915), Second Part, Question 86, Article 1.

인 새로 태어난 딸 Perdita까지 버리라고 Antigonus에게 명령함으로써 이 가정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고만 것이다.

Perdita를 죽든 살든 운명에 맡기고 이국 땅에 버리라고 할 때 Antigonus는 성서의 Elijah의 일화를 (열왕 17:3~6) 연상시켜 주는 기원을 하고 있다.

Come on, poor babe.
Some powerful spirit instruct the kites and ravens
To be thy nurses. Wolves and bears, they say,
Casting their savageness aside, have done
Like offices of pity.

(II. iii 184~188)

아, 불쌍한 애야; 가자
전능한 神이여 솔개나 까마귀들을 명하여
이애의 보모가 되게 해 주소서. 늑대나 곰도
그 잔학성을 버리고 그와 같이 자비스런 일을
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버려질 Perdita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면서 성서의 일화를 빌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성서에서 Elijah와 마찬가지로 Perdita는 버려지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다음은 성서에서 Elijah가 예수의 상징임을 감안 한다면 이 작품에서 그녀도 그리스도와 같은 차원의 인물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Leontes 개인의 질투심에 의한 죄악으로 파파된 질서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자연계까지 확대된다. Perdita를 버리던 날 Antigonus는 “대낮인데 이렇게 어두운 하늘은 처음 보았다. (I never saw the heavens so dim by day.)” (III. iii. 55~56)고 토로하고 있는데 그는 이같은 자연 질서의 파괴를 목격한 뒤 꿈에게 잡혀 죽고 만다. 그런데 자연 질서 파괴에 대한 이같은 표현은 성서적 울림으로 보인다.⁸⁾ 아기와 Antigonus를 싣고 간 뱃사람들도 폭풍우에 휩싸여 파선되었다. Leontes를 제외하고 “아기를 버리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은 아이가 발견될 때 다 죽었다. (all the instruments which aided to expose the child were even then lost when it was found.)” (V. ii. 70-72). 그러나 암흑과 폭풍 속에 죽어간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새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 버려진 아이는 맹수가 물어가기 전에 목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타락한 Leontes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나 버려졌다. 그러나 그 생명은 Leontes의 죄와는 상관없이 풍성한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Hermione는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에 부합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무죄한 Hermione은 남편의 질투심에 의한 희생자이다. 남편의 근거없는 의심 때문에 그녀는 사랑의

8) 성서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자연 현상의 이변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눅 23:24), “해가 어두워지며” (마 24:29)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상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많은 오해와 모욕 끝에 투옥되고 해산된 딸과는 채 썰도 떨어지기 전에 이별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학자들은 Shakespeare의 작품에서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의 대상이 된 인물에서 예수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Hermione가 이에 적합한 인물이다.

Mahood는 *The Winter's Tale*의 주제어를 "Grace"로 설정하고 Grace는 신학적 어휘로서 "the divine influence which operates in men to regenerate and sanctify" (N. E. D. II 6b)라고 소개하고 있다.⁹⁾ Fitch도 이 작품 해석의 중심 부분으로 I. ii 62~108를 선정하여 Hermione가 자주 쓰고 있는 "Grace"라는 단어가 대문자 G로 되어 있는 것은 "divine grace"를 암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⁰⁾ Hermione는 이같이 신성한 미덕을 소유한 인물인 것이다. Hermione의 이같은 미덕을 강조하여 Bryant도 이 작품의 주제를 "Grace"로 설정하고 그녀를 은혜의 총화인 그리스도의 위치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¹¹⁾ 말하자면 성서가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1:17)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Hermione도 그리스도의 덕성인 은총을 소유한 무죄한 자로서 고통을 당하지만 타인의 죄악과 결점을 포용하며 용서하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Hermione가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Hermione에게 부여되고 있는 수식어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Our most gracious mistress" (I. ii. 233), "the gracious queen" (I. ii. 459), "his gracious dam" (III. ii. 198), "our gracious lady" (II. ii. 21) 그리고 "a gracious innocent soul" (II. iii. 29)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여러번 강조한 "Grace"와 그녀에 대한 수식어인 "gracious"의 높은 빈도수도 미루어 보아 우리는 Hermione에게서 성서의 "은혜 위에 은혜 (grace for grace)" (요1:16)에 대응되는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Hermione은 Polixenes가 Sicilia 궁전에 더 머물도록 설득할 때 "Verily"를 거듭해서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I. ii. 46-56) "진실로 진실로"는 복음서에서 예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자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다.¹²⁾ 그러므로 Hermione가 짧은 대사 속에서 그것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 "verily"를 여러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Shakespeare가 성서를 염두에 두고 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Polixenes의 다음과 같은 비유도 Hermione가 그리스도로 부각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O, then my best blood turn
To an infected jelly and my name
Be yoked with his that did betray the Best!

9) M. M. Mahood, *Shakespeare's Wordplay* (London: Methuen, 1965), p. 150.

10) Robert E. Fitch, *Shakespeare: The Perspective of Valu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p. 32.

11) J. A. Bryant, Jr., *Hippolyta's View* (Kentucky: Univ. of Kentucky Press, 1961), pp. 210-211.

12) 성서에서 "Verily, Verily"는 예수가 주로 자신을 증거할 때 (요 8:58), 구원을 강조할 때 (요 3:3, 5, 6:47, 53) 그리고 신자의 생활을 강조할 때 (요 13:16, 20, 21:18)에 사용하고 있다.

(I. ii. 417-419)

오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강한 내 피가 오염된 젤리처럼 엉킬것ियो.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그 자와 같은 부류에 속할 것이고.

Polixenes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을 성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 (마26 : 49)에 비유하고 있다. 비록 내용 상으로는 그가 유다와 같은 배반자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는 그같은 역할을 실행한 결과가 되었다. 왜냐하면 Hermione는, Leontes의 오해이긴 하지만, Polixenes 때문에 투옥되고 긴 세월을 죽어지내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Polixenes가 유다에 비유된다면 그녀는 예수에 비유되는 것이다. Shakespeare는 이같은 비유를 통해 Hermione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은총으로 가득찬 무죄한 영혼” (II. iii. 29)인 Hermione은 Leontes의 광적인 질투심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잃고 아들과는 정식으로 상면할 권리마저 빼앗겼으며 딸과는 입 속에 젖을 머금은 채 이별하게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그녀는 “간부(adultress)” (II. i. 88), “반역자 (trator)” (II. i. 89), 그리고 “부정한 여자 (bed-swerfer)” (II. i. 93)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다. 그녀는 Leontes가 저지른 최악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Hermione가 당한 이같은 인격적 육체적 모욕은 그리스도가 당한 그것과 동일 선 상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리고 무죄한 자로서 억울하게 투옥되면서도 울고있는 시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는데 이때 그녀의 모습도 십자가를 지고가다가 울고있는 여인들을 위로하는 예수를 연상시켜 준다.¹⁴⁾

Do not weep, good fools:
There is no cause. When you shall know your mistress
Has deserved prison, then abound in tears
As I come out. This action I now go on
Is for my better grace. Adieu, my lord.
I never wished to see you sorry ; now
I trust I shall.

(II. i. 118-124)

이런 바보들, 울지 말아요.
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만한 죄를 범한 것이
알려지는 때 내가 출옥하면 울어 마땅하겠지만.

13) 예수도 재판없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요 18 : 30~31) 조롱과 조소를 당했으며 (마 27 : 29, 31 : 39, 44) 침뱀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마 26 : 67) 수모를 감수했다.

J. A. Bryant, JR. "Shakespeare's Allegory : *The Winter's Tale*" in *The Sewanee Review*, Vol. Lxiii, ed. by Monroe K. Spears (The Univ. of South Sewanee, 1955), p. 212.

14)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company of people, and of women, which also bewailed and lamented him. But Jesus turning unto them said, Daughters of Jerusalem, weep not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Luke 23 : 27~28)

지금 내가 쓴 누명은 후일에는 보다 좋은 은총이
될 것이요.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전하께서
후회하실 일이 없으시기를. 이제는 그런 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퍼할 것은 순결한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는 비극의 기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Leontes의 난폭한 행동에 대한 Hermione의 반응은 종교적 의미에서 “더 나은 은총(better grace)”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가 죽기 얼마 전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¹⁵⁾ Hermione는 예수와 같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Parker는 그녀가 겪는 부당한 고통을 기독교적 헌신으로 부각시키고 있고¹⁶⁾ Traversi도 그녀가 겪는 고통이 Lear의 고통보다 훨씬 더 종교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Hermione는 예수가 “죄가 없는(without spot)”(히 9:14) 인물인 것과 같이 “하늘에 맹세코 죄가 없는 왕비(the queen is spotless i' th' eyes of heaven)”(II. i. 131~132)이다. 그녀는 인내, 기도, 겸양, 용기 등 기독교적 덕목을 따르는 인물로서 극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늘이 나에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임(the heavens look with an aspect more favorable)”(II. i. 106~107)을 믿는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Hermione은 자신의 운명을 “heavens”, “power divine”(III. ii. 28) 등 이교 神에 맡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그녀가 예수의 상징이고, “신성모독금지령”을 감안 한다면 Bethell의 지적대로 그녀의 이교 神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기독교적인 것이다.¹⁸⁾

*The Winter's Tale*에는 *Pericles*나 *Cymbeline*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神性(Power Divine)이 극 내부에 깊숙히 침잠되어 있다. 이같은 신성의 내재는 전능한 힘에 의해 이 작품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작품에서는 “위대한 아폴로 神(Great Apollo)”(II. iii. 199)이 전반적인 극적 사건들을 주재하고 있는데 Apollo 神은 음악과 시의 神이며 조화의 신이다. 그리고 신과 인간 간의 중재자이기도 하다. *Measure for Measure*의 Vincentio 공작은 “Power Divine”(V. i. 309)으로 직접 등장하여 작품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고 *Pericles*에서 Diana나 *Cymbeline*에서 Jupiter 神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The Winter's Tale*의 Apollo 神은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힘은 신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 작품에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 자체도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Apollo 神은 이 작품에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대 뒤에서 신탁의 내용이 성취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Leontes가 신탁의 神性を 부인하자마자 곧바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

15) 예수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 16:7),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20)고 위로하고 있다.

16) M. D. H. Parker, *The Slave of Life* (London: Chatto & Windus, 1955), pp. 183-4.

17) Derek Traversi, *Shakespeare: The Last Phas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55), p. 123.

18) S. L. Bethell, *The Winter's Tale: A Study* (New York: Staples Press Ltd., 1947), p. 39

는데 그는 이것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神의 복수라고 판단한다. Leontes는 이 순간 神性 이 소유한 강력한 힘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Pericles*나 *Cymbeline*에서 처럼 이 작품에서도 신성의 힘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Apollo에 의한 신성의 작용은 Mahood의 지적대로 이 작품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로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구도를¹⁹⁾ 찾을 수 있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Milward는 이 작품에서 神의 중재가 여러번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Here, too, the intervention of divine providence is evident : first, in the proclamation of Apollo's oracle and Leontes's miraculous punishment for his disobedience; and secondly, in the scarcely less miraculous restoration of Hermione to Leontes after his sixteen years of penitence. Again, there is mention of a joy that 'wades in tears', as though at the news 'of a world ransomed, or one destroyed' (v. 2).²⁰⁾

신탁의 포고, Hermione의 재생 그리고 마지막 재회의 장면 등 이 작품 구성의 핵심이 되는 장면에서 神性이 작용했다는 지적은 이 작품에서 神의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Apollo 神의 목소리를 Ⅲ막 ii장에 등장하는 Delphos의 Apollo 신전으로부터 나온 신탁을 통해 듣게 된다. Dion은 그곳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I shall report,
For most it caught me, the celestial habits —
Methinks I so should term them — and the reverence
Of the grave wearers. O, the sacrifice,
How ceremonious, solemn, and unearthly
It was i' th' off'ring !

(Ⅲ. i. 3-8)

제단에 가장 된 것은 역시,
신선 날개옷 같은 그 복장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꼭 그렇게
불렀지요, 그 신관들의 숙연하고 경건한 모습을
전해야겠습니다. 오 그 제물! 장중하고
엄숙하여 온통 지상의 의식같지가 않았던
그 제사의식 감탄 뿐입니다.

Milward는 신전의 제사 의식에 대한 묘사에 기독교적 주제가 침잠되어 있음을 시사하면서 특히 카톨릭 미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celestial habits", "reverence", 그리고 "ceremonious, solemn, and unearthly"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²¹⁾ 사실 Milward가 주장

19) M. M. Mahood, *op. cit.*, p.150

20)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p.234.

21) *Ibid.*, p.29.

하고 있듯이 Shakespeare는 카톨릭에 공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어휘들을 반듯이 카톨릭 교리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ion은 신탁이 제시되고 있는 종교 의식과 신에 대한 숭배 모습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묘사함으로써 신탁이 주는 극적 효과를 극대화 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탁은 이 작품에서 강력하고 진정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Apollo 神의 계시에 대한 권위는 Dion의 보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Ⅲ막은 Leontes의 성격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극의 전환점이 된다. 말하자면 처참한 비극에서 화해의 희극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재생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전환은 과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신탁의 내용 때문이다. Leontes가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굳히기 위해 요청한 신탁이 그의 의도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Hermione is chaste, Polixenes blameless, Camillo
a true subject, Leontes a jealous tyrant, his
innocent babe truly begotten; and the king shall live
without an heir if that which is lost be not found.

(Ⅲ. ii. 132-136)

허마이오니는 정결하고, 폴릭세이너스는 무죄하며,
캐밀로는 충신이다. 리온티스는 질투에 찬 폭군이고
그 순진한 어린아이는 어엿한 왕의 자식이다. 버린 아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왕은 후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Bethell은 Apollo의 신탁은 시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신성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²²⁾ J. Vyvyan도 신탁은 神으로부터 열정에 찬 인간에게 내려온 멧시지라고 지적하고 있듯이²³⁾ 이 작품에서 신탁은 Apollo로 상징되는 전능한 神의 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능한 神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신탁에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Hermione가 무죄하고 정결하다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의롭고 (사53:11) 죄없다(고후5:21)는 성서의 애얼리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듯이 (마27:24) Hermione도 Leontes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Leontes가 Hermione를 의심하고 믿지 못한 죄에다 신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Macbeth가 神의 상징인 Duncan왕을 살해한 것과 같이 신성한 Hermione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Leontes는 신탁을 부인한 후 실제로 그녀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병행하여 이교도에서 Apollo 神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등장하고 있는데²⁴⁾ Apollo의 신탁 내용에서 “버린 아이가 발견되지 않는한”이라는 가정 속에는

22) S. L. Bethell, *op. cit.*, p. 83.

23) John Vyvyan, *The Shakespearean Ethic* (London: Chatto & Windus, 1959), p. 110.

24) Edgar Wind, *Pagan Mysteries in the Renaissanc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48), p. 252.

Perdita가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는 Leontes에게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리라는 강력한 시사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神의 뜻 (spiritual counsel) (II. i. 186)을 파악하기 위해 신탁을 구하러 보낸 사람은 Leontes이다. 그러나 그는 신탁의 내용을 “순전히 거짓 (mere falsehood) (III. ii. 141) 이라고 부정한다. 이같은 신탁에 대한 부정은 Muir가 주장하고 있듯이 神의 “직접적인 중재로 (direct intervention)”²⁵⁾ 인한 Mamillius의 죽음이라는 즉각적인 중벌을 야기시키게 된다. Leontes가 도전했던 신의 권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가혹하게 전개되자 그는 자신의 죄악을 하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다.

Apollo's angry, and the heavens themselves
Do strike at my injustice.

(III. ii. 146-147)

아폴로 신이 노하신 거다, 그리고 하늘이 나의
죄악에 직접 벌하시는 것이다.

Leontes의 신성모독죄는 이미 Mamillius의 죽음, Perdita의 상실, Antigonus와 수부들의 죽음, Hermione의 가장된 죽음 그리고 Leontes 자신의 16년간의 고통스런 고독 등의 비극적 사건들로 점철시키고 있다. 그는 결코 범해서는 안되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가혹하게 재판하는 죄악을 범한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 7:24:)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Leontes는 “공개적인 재판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We do openly proceed in justice, which shall have due course)” (III. ii. 5~6) 공의의 재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神性を 부인했기 때문에 神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Leontes는 자신의 죄악을 神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다. 그의 이같은 행동은 자신의 구원의 관문으로 볼 수 있다.

Apollo, pardon
My great profaneness 'gainst thine oracle!
I'll reconcile me to Polixenes,
New woo my queen, recall the good Camillo,
Whom I proclaim a man of truth, of mercy;

(III. ii. 154~158)

아폴로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나의 신탁에 대한 커다란 신성모독죄를!
플록씨니스 와는 화해를 하겠습니다.

25) Kenneth Muir, 'Theophanies in the Last plays', in *Shakespeare's Late Plays*, ed. Richard Tobias and P.G. Zolbrod (Athens, Ohio, 1974), p.37.

아내와는 새로운 사랑을 그리고 캐밀로를 다시 불러
그의 충직하고 인자한 사람됨을 널리 알리겠소.

그는 통회의 눈물, 진실과 자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인식과 회개를 통하여 神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숭고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회개는 Calvin 신학에 따르면 “죄의 화인으로 상처를 받은 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얻어내고 압도된 때 표출되는 율법의 회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절망의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²⁶⁾ 질투, 투옥, 배신, 살해, 신성모독 등 그가 저지른 죄는 “율법의 회개”만으로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 “복음의 회개”를 통한 용서 즉 영적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엄격한 자기 관리라는 속리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Bethell이 이 작품은 분명히 이교적 요소만큼이나 많은 기독교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²⁷⁾ Leontes가 신탁을 부인한 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神의 용서를 비는 과정은 기독교적 구원의 패턴에 적절히 부합되고 있다. 그리고 그후의 실제 행동에서도 기독교적 구원과정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신탁을 믿지 않는 Leontes에게 Paulina는 고행 속에서 기도와 금식을 한다해도 회개에 부족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Ⅲ. ii. 205~215) “기도”, “금식”, “회개” 등의 신학적 어휘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구원 과정이 이교적 배경 속에서도 기독교적 구원의 색채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ontes도 회개하고 속리하는 의미로 자기 때문에 죽게된 Hermione와 Mamillius의 무덤이 있는 성당에 하루에 한번씩 참례하겠다고 결심을 보이고 있다. (“Once a day I'll visit the chapel where they lie”) (Ⅲ. ii. 238~239). 교회 안에 모신 두 사람의 무덤 그리고 매일 매일의 참례 등 Shakespeare 당시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던 기독교적 관례와 풍속들이었다.

재판 장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삶”과 “죽음”의 주제는 그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되어 어떻게 “은총(Grace)”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Antigonus는 “잃어버린 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Perdita를 버렸다. 연약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죄의 결과로 생긴 격동의 세계를 상징하는 극심한 폭풍우 속에 죽던 살던 운명에 맡기고 던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Antigonus와 수부들은 죽었지만 Perdita는 검소하고 늙은 양치기에 의해 발견된다. 양치기가 광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Ⅲ. iii.

“Others, because they saw the various meanings of this word in Scripture, posited two forms of repentance. To distinguish them by some mark, they called one “repentance of the law.” Through it the sinner, wounded by the branding of sin and stricken by dread of God’s wrath, remains caught in that disturbed state and can not extricate himself from it. The other they call “repentance of the gospel.” Through it the sinner is indeed sorely afflicted, but rises above it and lays hold of Christ as medicine for his wound, comfort for his dread, the haven of his misery.”

27) S.L. Bethell, *op. cit.*, p.38.

대 아들에게 “너는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고, 나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보았다. (Thou met'st with things dying, I with things new-born)” (Ⅲ. iii. 112~113)고 말하고 있듯이 Shakespeare는 의도적으로 죽음과 생명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늙은이와 새 생명을 젊은이와 죽어가는 생명을 대조시키고 있다. 죽음과 생명의 대조 속에서 광대는 양치기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범한 죄만 사함을 받으시면 이제 살판나겠지요. (if the sins of your youth are forgiven you, you're well to live)” (Ⅲ. iii. 119~120)라고 기독교적 죄사함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sin of your youth”는 성서의 “the sin of his youth” (욘 20 : 11), 그리고 “sin of your youth are forgiven you”는 성서의 “O remember not the sins and offences of my youth” (시 25 : 7)의 울림이다. 이와같이 Shakespeare가 “새로 태어나는 생명” 발견된 곳에서 죽어가는 늙은 세대의 속죄를 성서적 언어를 이용하여 강조 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를 구원사상으로 이끌려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Shakespeare는 통상 시간이나 장소의 일치 법칙을 무시하는 작가로 인식되고 있다. 고전 법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각 작품은 서로 다른 특유의 효과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 작품들에서 Shakespeare가 시간을 자유 자재로 뒤흔들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주게 된다. 초기 희극이나 비극에서도 삼일치 법칙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action은 기껏해야 수개월을 넘지 않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말기극에서는 그 시간이 수년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The Winter's Tale*에서도 16년이라는 긴 시간의 경과가 있다. 버려진 딸이 성장하고 귀국하여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서는 기다란 시간의 터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을 향한 길고도 험난한 고통의 세계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Lear와는 달리 이 기간 동안 Leontes가 어떠한 참회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질투가 빛은 결말에 극도로 상심한 리온티즈는 두문불출 칩거했다. (Th' effect of his fond jealousies so grieving that she shut up himself.” (IV. i. 18-19)고 Time에 의해 간단히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다란 고난의 기간을 압축하여 간단히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Shakespeare의 의도가 구원에 이르는 고통스런 정화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도는 버려진 딸 Perdita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Leonte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ime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되고 있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To speak of Perdita, now grown in grace
Equal with wond'ring.

(IV. i. 24-25)

페디타 공주님의 소식을 전하자면 공주는 지금 신의
은총 속에서 자라 놀랍도록 어여쁜 처녀로 성장했소.

우리는 Time의 보고를 통하여 Perdita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increased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grace with God and man" (눅 2 : 52)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은혜 속에서 자라 (grow in grace)" (벧후 3 : 18)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Milward도 이점을 착안하여 Perdita의 성장에 대한 이같은 표현을 성서적 울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⁸⁾

Perdita를 버리려간 Antigonus는 꿈 속에서 Hermione가 자신의 딸 이름을 Perdita 즉 "잃어버린 자 (the babe is counted lost)" (Ⅲ. iii. 32) 라고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리고 신탁의 내용에는 "잃어버린 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왕은 후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and the king shall live without an heir if that which is lost be not found.)" (Ⅲ. ii. 134~135)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같은 가정 속에는 Perdita가 죽지않고 살아서 귀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실제로 생존하여 귀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Perdita에 적용되는 cycle은 성서에서 예수가 버림을 받았지만 부활하여 다시 재림하게 된다.²⁹⁾는 cycle의 애널러지로 보인다. 특히 예수의 재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 이듯이 (요 14 : 3) Perdita가 귀환하게 됨으로써 신탁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은 ("the Oracle is fulfilled") (V. ii. 22) 흥미 있는 일이다. 귀환한 Perdita는 신탁의 예언대로 "후사(heir)"이며 성서적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joint-heirs with Christ)" (롬 8 : 7)인 것이다.

버려진 자 Perdita의 고통자체는 원만하게 잘 그려져 있지 않다. 성서에서 예수의 성장과정의 간단히 언급되고 직접 공생애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듯이 그녀도 갑자기 목가적 장면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기간이 생략된 채 직접 봄의 동산에 여신으로 제시되어져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작품에서 고통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Pericles*에서 Marina의 고통이 극의 후반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 Perdita의 고통은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극적 정서는 목가적 분위기의 뒷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비극적 정서를 압도하고 있는 IV막에서 목가적 장면은 걱정에 찬 궁전과는 대조적으로 생애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 Autolycus는 평화로운 정원에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기쁨의 노래를 선사한다.

When daffodils begin to peer,
With heigh ! the doxy, over the dale,
Why, then comes in the sweet o' the year;
For the red blood reigns in the winter's pale
(IV. ii. 1-4)

28)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p.94.

29) 예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버림 받고 (막 8 : 31), 제자들에게서도 버림받고 (막 26 : 56)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막 27 : 46)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여 (행 2 : 32, 3 : 15) 재림하기로 되어있다 (행 1 : 11, 제 1 : 7, 막 13 : 26, 마 25 : 31).

수선화 필 때면,
산너머에 처녀가 피고
방화음수의 제절
해쓱한 거울에 붉은 피가 돈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겨울 속에서 피어난 수선화처럼 놀랄만한 은총 속에서 자란 Perdita의 출현과 함께 비극에서 희극으로의 극적 전환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Perdita는 "4월에 나타나는 프로라 여신 (Flora peering in Apirl's front") (IV. iv. 3)으로서 "the bringer of spring, the rerewer of life"³⁰⁾이다. 그녀는 Jove, Jupiter, Neptune, Phoebus, Proserpina, Juno, Cytherea 등 이교 神들보다도 더욱 화려한 화환을 쓴 "the resplendent herald of spring"³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Muir는 Perdita의 출현을 神의 출현과 동일시하여 "It is hardly fanciful to suggest that theophany in *The Winter's Tale* is the appearance of Perdita"³²⁾라고 까지 단언하고 있다. 풍요로운 봄의 서곡을 알리는 양털각기 잔치는 비록 지상의 잔치이지만 그것은 또한 "위대한 창조력을 지닌 자연 (great creating nature)" (IV. iv. 88)을 축하하는 잔치이며 창조의 神에게 찬사를 바치는 경사인 것이다. 우리는 Perdita를 통하여 이전의 비극부에서 볼 수 없었던 생명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특히 Perdita가 각양의 꽃을 등장 인물 각각에 적합하게 나누어 주며 기쁨에 충만되어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생기에 찬 생명이 넘쳐 흐름을 본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연의 美와 조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神의 은총이 충만한 한쌍의 젊은 남녀를 탄생시킨다. 사랑하는 두 젊은이의 생명에 넘치는 순수한 사랑은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목동과 목녀들의 축복 속에서 성숙되어 간다.

이 목가적 장면이 상징적 의미가 있듯이 Florizel과 Perdita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의 상징적 형태이다. 진정한 사랑이 종종 그러하듯이 그들의 사랑은 커다란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Polixenes는 예쁘고 기품있는 Perdita에게 처음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이 그녀와 사랑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이별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Florizel은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 놓여 있는 장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Perdita도 신분을 빙자하여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Polixenes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녀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he selfsame sun that shines upon his court
Hides not his visage from our cottage but
Looks on alike.

(IV. iv. 445-447)

30) D.R.C. Marsh, *The Recuring Miracle* (Pietermartzburg : Univ. of Natal Press, 1969), p.156.

31) Edgas Wind, *op. cit.*, p.115.

32) Kenneth Muir, *op. cit.*, p.38.

왕궁에 비치는 해가 우리 초가에도 똑같이
비치고 차별하지 않는답니다.

Perdita는 역경에 처한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 성서의 산상수훈 중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의 일부를 원용하고 있다.³³⁾ Florizel도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임을 밝히기 위해 성서적 언어를 이용하여³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It cannot fail but by
The violation of my faith; and then
Let nature crush the sides o' th' earth together,
And mar the seeds within. Lift up thy looks.
From my succession wipe me, father, I
Am heir to my affection.

(IV. iv. 477-482)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랑은 꼭 성취될 것이요. 사랑에 실패하느니
차라리 이 지구덩이가 산산이 부서져 모든
생명체가 멸종이라도 되라지! 얼굴을 들어요.
아버님, 왕위를 버리고 저는 사랑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Perdita는 성서의 산상수훈을 원용하고, 강렬한 사랑의 변함 없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Florizel은 성서적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 Shakespeare는 이와같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수단이나 심정을 토로 하는데에도 성서를 이용함으로써 이 작품에 기독교적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Shakespeare는 *Pandosto*에는 없는 Paulina를 창조하여 이 작품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전환시켜 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녀는 눈물과 죽음과 슬픔의 극을 웃음과 생명과 기쁨의 극으로 이끌도록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Shakespeare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대응적 주제들인 죄와 용서, 죽음과 재생, 슬픔과 기쁨, 현실과 환상 등을 형상화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서 Paulina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그녀를 통하여 이 작품이 낭만적이고 극적인 만큼이나 종교적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statue scene"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Paulina는 Ariel이 Prospero를 섬기는 것처럼 신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녀는

33)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 5:45).

34) Richmond Noble, *Shakespeare's Biblical Knowledge* (London: The Macmillan Co., 1935), p.28. "a great nation shall arise from the sides of the earth" (Jer 6:22).

"personification of Leonte's conscience"³⁵⁾ 이고, 신탁의 여사제(Priestess)³⁶⁾ 즉 神들의 사역자로 묘사되어 있다. 비록 Paulina가 Mariana와 Imogen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내의 미덕을 소유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Leontes를 향한 그녀의 심한 비난의 말은 신탁에 대한 충실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G. Wilson Knight가 "Paulina's phraseology is again orthodox and Christian"³⁷⁾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그녀의 어투는 신탁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단자로서 그녀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는 Leontes에게 대응하는 그녀의 언어에서 잘 나타나 있다.

I care not.

It is an heretic that makes the fire,
Not she which burns in 't.

(II. iii. 113-116)

그래도 좋습니다.

이단자는 불을 지피는 쪽이지
타는 쪽이 아니랍니다.

Paulina는 기독교적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화형은 이교도에 대한 극한 처벌인데 여기서 Paulina는 역으로 이교도를 Hermione에 대한 믿음이 없는 Leontes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Leontes는 Hermione에 대해서는 이교도가 되는 것이고 Paulina 자신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때의 Paulina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 10:28)는 말씀에 따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행 21:13)는 Paul사도와 같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이다. 그녀의 언어는 그만큼 기독교적 신앙과 숭배적 요소가 풍부한 것이다.

Paulina는 Leontes가 16년 간의 회개 기간 내내 Hermione에 대한 기억을 유지시켰고, 그가 재혼하지 못하도록 설득시켰다. 신탁이 전달된지 16년이 지난 V막의 초두에서 우리는 그때까지도 후사를 위해 그가 재혼을 해야된다는 조정 신하들의 의견을 일소하면서 Hermione의 고결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Paulina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Leontes에게 "전하께서 죽이신 왕비(Shew you kill'd)" (V. i. 15)라고 다시 한번 지적함으로써 그의 참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이같은 지적은 비록 냉정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신탁의 취지를 철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Leontes는 신탁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려야 하며 재혼도 할 수 없다. 그녀는 신탁의 성취가 신들의 비밀스런 계획임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35) R. G. Hunter, *Shakespeare and the Comedy of Forgivenes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p.200.

36) G. Wilson Knight, *The Crown of Life* (London : Methuen, 1982), p.123.

37) *Ibid.*, p.87.

Besides, the gods
Will have fulfilled their secret purposes:
For has not the divine Apollo said,
Is 't not the tenor of his oracle,
That King Leontes shall not have an heir
Till his lost child be found?

(V. i. 35-40)

뿐만 아니라 神들은
비밀스럽게 그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아폴로神이 그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는 레온티스 왕에게는
후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신탁의 취지이었지요?

강력한 재혼 반대, 신의 비밀스런 계획에 의한 신탁의 성취에 대한 강한 믿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Paulina는 사도 Paul이 예수의 재림을 믿고 그 사실을 설교 했듯이 신탁의 내용이 성취되어 Perdita가 분명히 살아서 귀환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Dion과 Cleomenes는 Paulina와는 달리 Leontes가 충분히 속죄했음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득하고 있다.

Sir, you have done enough, and have performed
A saint-like sorrow. No fault could you make
Which you have not redeemed: indeed, paid down
More penitence than done trespass. At the last,
Do as the heavens have done, forget your evil:
With them forgive yourself.

(V. i. 1-6)

전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성자처럼 깊은
참회를 하셨습니다. 속죄되지 아니한 죄악은
전혀 없습니다. 진정 전하의 회개는 죄과의
몇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용서해준 것 같이 전하도 죄악을 잊고
스스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Leontes는 죄를 범했지만 충분한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Bethell의 지적대로 이같은 참회는 기독교적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³⁸⁾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구원의 패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Milward도 후기 작품들에 나오는 참회의 고백이 지니는 역할을 논하면서 16년 간의 고독과 진심에서 나온 회개는 Apollo 神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구실

38) S. L. Bethell, *op. cit.*, p. 40

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까지도 속죄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³⁹⁾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Leontes의 경우는 자기의 행한 죄악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미워하며 더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는 소극적 회개으로써 완전히 속죄되어 구원되었다고 보기는 현 단계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Luther가 "Such an attitude is presumptuous and fabricated, for no one has sufficient contrition for his sin"⁴⁰⁾라고 지적했듯이 고통과 참회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소극적 회개를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⁴¹⁾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Leontes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고행의 단계 이외에 신탁에 예언한 Perdita의 귀환에 대한 믿음은 없다. 다시 말해서 Calvin이 지적한 "복음의 회개 (penance under gospel)"⁴²⁾를 통한 구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Leontes는 Camillo의 도움으로 Bohemia를 탈출하여 Sicilia에 귀환하게 된 Florizel과 Perdita에게 "이 세상에 찾아온 봄처럼 (As is the spring to th' earth)" (V. i. 151) 환영한다. 그들의 방문은 그의 영혼에 찾아온 봄 기운과 같다. Autolycus는 Florizel이 Perdita에게 구애하는 것을 "은총의 도래 (Coming into grace) (IV. iv. 778)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제 Florizel과 함께 Sicilia로 귀환한 Perdita는 Leontes에게 신성한 은총의 원천이 되고 있다. Perdita와 Leontes 간의 장면 장면이 신사에 의해 보고된다. "신탁이 성취되었다. 왕의 잃었던 딸이 발견된 것이다. (The oracle is fulfilled; the king's daughter is found)" (V. ii. 22~23).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듯이 (마 1:22, 2:14~23, 행 13:17~19) Apollo의 예언도 신탁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Perdita의 귀환은 표면적으로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神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Milward도 이점을 강조하여 "The reunion (of father and daughter) is represented as the outcome not of mere natural power but of divine grace"⁴³⁾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Gentleman이 두사람의 재회에 대해 "순간마다 어떤 새로운 은총이 일어날 것만 같다. (Every wink of an eye, some new grace will be born)" (V. ii. 110)라고 보고하고 있듯이 모두가 온통 은총으로 충만되어 있다. 말하자면 Perdita의 발견은 Leontes가 정신적으로 재생한 증거가 된다.⁴⁴⁾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Perdita와의 재회를 성취한 Leontes는 Calvin이 지적한 "복

39)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p. 20.

40) Martin Luther, "The Sacrament of Penance" in *Luther's Works* Vol. 35, American Edition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p. 18.

41) Arthur A. Cohen & Marvin Halverson ed., *A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 (Nashville: The Parthenon Press, 1958), p. 322.

"Repentance was a putting away of doubt in God, and the anxiety and lostness which follow from it; and a return to God in the confidence and joy of trusting son (Mark 1:15, Luke 17:3, 4, Matthew 3:2)."

42) Note 26 참조.

43)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p. 233.

44) L. B. Bethell, *op. cit.*, p. 89.

음의 회개"에 의한 영적 구원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상징인 Perdita와 재회한 Leontes는 "lays hold of Christ as medicine for his wound, comfort for his dread, the haven of his misery"⁴⁵⁾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Perdita와의 재회를 통해 얻은 Leontes의 세계는 "구원받을 세상 (a world ransomed)" (V. ii. 15)이며 神의 은총과 새 생명으로 충만된 세계이다. "발견된 딸에 대한 기쁨으로 신바람이 난 (to leap out of himself for joy of his found daughter)" (V. ii. 50-51) Leontes의 세계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를 찾았노라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which I had lost)" (눅 15 : 9)고 기쁨에 넘쳐있는 여자의 세계와 같은 차원인 것이다.

Leontes의 구원의 세계, 즉 부녀간의 감격적인 재회 장면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세 명의 Gentleman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 Quiller-Couch는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최악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악평했고⁴⁶⁾ Doren 같은 학자는 이점에 대해 Shakespeare가 이미 과도하게 복잡해진 플롯에 실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⁷⁾ 그러나 Coghill은 이 장면의 주된 기능은 "Statue Scene"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⁴⁸⁾ 그의 해석은 최근에 와서 더욱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oghill의 주장대로 Shakespeare는 다음에 전개될 "Statue Scene"에서 Hermione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 장면을 이 작품의 크라이맥스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Leontes는 딸과의 재회로 인한 영적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죽은 아내의 石像을 보기 위하여 Paulina의 집에 간다. Paulina는 Hermione의 석상을 가르키며 "마치 잠이 죽음과 흡사한 것과 같이 石像에 生命이 있는 것 같다. (the life as lively mock'd as ever still sleep mock'd death)" (V. iii. 19-20)는 표현, 다시말해서 죽어있는 것 같은 석상은 실상 살아 있다는 암시적 표현인데 이같은 표현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 성서의 울림인 것이다.⁴⁹⁾ 앞에서 우리는 Hermione에서 예수의 상징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예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그녀가 실상은 石像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 임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이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내용의 성서적 울림은 이 작품 전체의 주제와 적절히 부합되고 있다. 왜냐하면 石像의 生命體化는 죽었지만 부활하여

45) John Calvin, *Insr.* III. iii., Note 26 참조.

46) A. Quiller Couch, "Introduction", *The New Shakespeare: The Winter's Tale* (1931; rpt.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8), p. xxxii.

47) M. V. Doren, *Shakespeare* (1939; rpt. N. Y.: Doubleday Anchor Book, 1955), p. 279.

48) Nevil Coghill, "Six Points of Stage-Craft in *The Winter's Tale*", *Shakespeare Survey* 11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58), pp. 38-39.

49) 성서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가 하오며 (Lest I sleep the sleep of death)" (시 13 : 3) 나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those who sleep in Jesus)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전 4 : 14)와 같은 잠에 대한 언급에서 죽음을 잠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New Bible Dictionary*는 죽음을 잠과 동등시하여 "Sleep is also a synonym for physical death. (Jb. 14 : 12, Jn. 11 : 11-14, 1 Cor. 15 : 18) This signifies that death, like sleep, is neither a permanent state, nor does it "destory the identity of the sleeper." (Lk. 24 : 39f)"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오는 재림 예수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yant도 두번에 걸친 Leontes의 화해에 대하여 개심한 유대민족이 일차적으로는 몸이 변하고 다음은 재림 예수와의 재회라는 우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⁵⁰⁾

石像을 본 Leontes의 첫 반응은 침묵과 경이 그것 이었다. 그러나 그는 石像이 자신을 꾸짖는 것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는 “나야말로 이것보다 더 차가운 목석이었다고 石像이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Does not the stone rebuke me For being more stone than it?)” 라고 자문자답하고 있다. Leontes는 Hermione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였지만 실물과 同一한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양심은 다시 한번 자극을 받게된 것이다. 그런데 Paulina는 石像이 움직이도록 하는 전체 조건으로 Leontes에게 기독교에서 신앙의 기초로 믿음을 강조하듯이 “믿음을 꼭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required you do awake your faith)” (V. iii. 94-95) 라고 믿음의 각성을 요구한다. 이윽고 그녀는 음악의 극적 효과와 함께 石像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을 명한다.

Music! Awake her, strike!

'Tis time; descend; be stone no more; approach;

Strike all that look upon with marvel. Come!

I'll fill your grave up. Stir, nay, come away;

Bequeath to death your numbness; for from him

Dear life redeems you. You perceive she stirs.

(Hermione comes down) (V. iii. 98-103)

음악을 시작해요! 깨어나시도록, 자 시작!

때가 됐으니, 내려오세요; 이젠 더 이상 석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세요

관중을 모두 놀라게 하세요. 자 내려 오세요;

무덤은 내가 메워 버리지요. 글썽, 움직이세요. 내려 오세요.

마비된 감각은 죽음에게 돌려 버리세요.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했으니깐요. 그녀가 움직이지 않아요.

[허마이오니 내려온다.]

Pauline는 Hermione가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맨처음 “음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때는 Hermione가 예언했던 “보다 나은 은총 (better grace)” (III. i. 122)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한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덤 감각에서 예민한 움직임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때인 것이다. 石像으로 있던 그녀가 생명체로 변하여 움직이는 것은 “harmony, forgiveness, restoration, redemption”을 의미한다.⁵¹⁾ 그리고 石像의 생

50) J. A. Bryant, *op. cit.*, p.217.

51) Edward William Taylor, *Nature and Art in Renaissance Literature* (London: Columbia Univ. Press, 1964), p.139.

命體化는 예수의 재림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돌은 예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⁵²⁾ 이 작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양상으로 성서의 영향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石像으로 등장하는 Hermione가 예수의 상징임을 감안할 때, 죽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상은 살아 있었던 Hermione가 다시 재생하여 모두에게 경이적 기쁨을 주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예수가 죽었지만 부활하여 이제 다시 재림하게 되는 패턴과 병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때가 되어 “음약”과 함께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서 내려오는 (“descend”) 그녀의 모습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descend)”하는 재림예수의 모습을⁵³⁾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때와 관련하여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약 2,000년 이라는 기다란 간격이 있는데 Hermione의 가상적 죽음과 재생 사이에 16년의 간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녀를 재림 예수로 추정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Bethell은 石像이 재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의 교리를 말한다고⁵⁴⁾ 전제하면서 이것은 “symbol of spiritual and actual resurrection”⁵⁵⁾ 이라고 함으로써 재림 예수의 상징으로 까지는 확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 地上에 잃었던 神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키듯이 Hermione도 Leontes에게 상실했던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림 예수의 상징인 그녀는 Perdita와의 재회를 통해 정신적 구원에 이른 Leontes와 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영적 구원에 뒤따르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⁵⁶⁾ 완성된 구원의 세계는 어머니 Hermione와 딸 Perdita가 재회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결국 “Statue Scene”은 Leontes와 Hermione에게는 극적인 행복감을 Paulina와 Camillo에게는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Florizel과 Perdita에게는 새시대에 새로운 행복한 결합을 통한 영원한 신세계를 제공하고 있는 극적 장면인 것이다.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해와 희망이 있다. 그렇게도 격렬했던 무질서 후에 온 평화와 조화의 세계에서 Leontes는 Polixenes와 Camillo와도 화해함으로써 가족의 재회뿐만 아니라 두 왕국 사이의 화해도 성취된 것이다. 가족의 재회는 神과 인간이 같이 하는 미래의 영적 삶을 상징하고 왕족 사이의 화해는 바다를 매개체로 한 이 세상과 저세상 간의 화해를 상징한다. 그리고 신약의 성취를 위해 순수하고도 충실하게 진력을 다한 Paulina와 Camillo의

52)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 28 : 16) 여기서 “돌”은 인격화 되어 있고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롬 9 : 10, 11, 벵전 2 : 6).

53) “주께서 효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descend) 하시리니” (데전 4 : 16), 그 외에 마 24 : 27, 36, 살후 2 : 2-3, 고전 15 : 51-52 참조.

54) S. L. Bethell, *op. cit.*, p. 74.

55) *Ibid.*, p. 103.

56) 성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 : 28)고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음으로 얻는 영적구원 (마 1 : 21)과는 구별하고 있다.

결합은 신의 계획을 완성시킨 공로에 대한 보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Leontes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인류가 상실했던 神의 은총을 어떻게 회복하여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는가를 잘 제시해 주고 있다. Shakespeare는 이 작품을 통해 이교적 배경 속에서도 기독교적 의미의 용서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제시함으로써 온 인류가 희망에 찬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기를 기원했던 것 같고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III

문학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기록이라면, 종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문학과 종교의 관계는 작가의 정신세계와 작품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Shakespeare가 작품을 썼던 Elizabeth 시대인들 중에는 神의 존재조차 의심한 회의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세적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神과의 교통을 갖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神의 용서에 의한 구원과 그러한 구원을 통한 영원한 삶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당대의 학문에 정통해 있었고, 철학도였으며 목적지향적 예술가였던, a man familiar with the learning of his day, a student of philosophy and a purposive artist)”⁵⁷⁾ Shakespeare의 경우에도 시대적 배경이나 개인적 환경에서 볼 때, 그의 작품 속에 이러한 기독교적 구원사상을 강렬하게 투영시켰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Shakespeare는 *The Winter's Tale*에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인간 존재의 원천적인 목적을 神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당대인들의 공동관심사였던 인간영혼의 구원이라는 시대사상을⁵⁸⁾ 이 작품을 통하여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류구원의 주제의식을 형상화 시키기 위하여 성서의 주제의식과 구성방법 그리고 인물, 언어, 비유, 상징 등을 작품 속에 아날로지의 형태나 상징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원죄, 유혹, 죄, 타락, 고통, 회개, 용서, 구원, 재생 그리고 영원한 삶과 같은 주제들은 성서적 주제의식이 작품 속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Shakespeare는 이러한 성서적 주제의식을 형상화할 때, 항상 인간 본성의 탐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널리 알려진 세계속인 이야기에다 중량감 있는 성서적 공명을 가해 줌으로써 작품의 심오한 예술성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성서적 접근을 통해 이 작품을 해석학적으로 탐구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난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e Winter's Tale*은 기독교 사상이 작품의 표면에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서적 사상과

57) L. B. Co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London : Methuem & Co. LTD, 1930), p. vii.

58)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 Collier Book, 1942), p. 2.

요소들이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Shakespeare 작품의 주제의 세계와 그의 문학적 상상력의 근거에 가장 뿌리 깊게 흐르고 있는 사상은 역시 인간의 영혼과 그 구원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을 통한 인류 구원의 문제를 극 형식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The Winter's Tale*은 이교적 배경속에서도 기독교 사상의 근간인 속죄를 통한 구원사상이 집중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작품이다. Shakespeare가 천재적 예술가로서 이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해방받고 새사람이 되어 神의 용서를 통해 실현되는 평화와 자비의 구원세계 이었다. Leontes를 통해 추구되고 있는 그 세계는 곧 Milton이 *Paradise Lost*를 통하여 추구했던 神이 계획한 이상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계 21 : 1) 과 의미론적으로 동일선 상에 있음을 뜻한다.

셋째, *The Winter's Tale*에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성은 선과 악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극적 구조 속에서 악의 우세로 시작되지만 대단원에 이르러서는 선의 승리로 이끄는 구성방식을 보여준다는 점 이다. 이 작품은 Jacobean 시대의 비관론적 사상을 작품의 갈등구조로 반영하는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Elizabethan 시대의 낙관론적 사상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작가 자신이 시대사상의 흐름 속에서 인식한 성서적 영향을 이 작품에 반영한 증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Shakespeare가 당대의 시대사상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의 문학적 주제의식이 도덕적 파멸과 분열이나 질시보다는 구원과 화해와 용서라는 성서적 주제의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단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The Winter's Tale*의 특성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추구한 예술성과 삶을 통해 추구한 사상성이 문학적 주제의식으로 조화롭게 형상화되어져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절제된 구성 기법과 인물의 갈등구조, 그리고 비유와 상징, 혹은 아날로지 형식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The Winter's Tale*은 Shakespeare가 성서적 영향과 시대사상의 바탕 위에서 그의 천재적 예술성을 절묘하게 구축하여 승화시킨 작품 이다.

参 考 文 献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London : R & T Washbourne LTD., 1915.
- Bethell, S.L. *The Winter's Tale : A Study*. New York : Staples Press Ltd., 1947.
- Bryant, J.A. *Hippolita's View*. Kentucky : Univ. of Kentucky Press. 1961.
- . "Shakespeare's Allegory : *The Winter's Tale*" *The Sewanee Review* Vol. LXIII. The Univ. of south Sewanee, 1955, pp.202-22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 Campbell, L.B. *Shakespeare's Tragic Heres*. London : Methuen & Co. Ltd., 1930.
- Coghil, Nevil. "Six Points of Stage-Craft in *The Winter's Tale*" *Shakespeare Survey II*.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1958, pp.31-41.
- Cohen, Arther A. and Harverson, Marvin. ed., *A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 Nashville : The Parthenon Press, 1958.
- Felperin, Howard. *Shakespearean Romanc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2.
- Fitch, Robert E. *Shakespeare : The Perspective of Value*.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4.
- Fowler, Alastair. "Leontes' Contrition and the Repair of Nature", *Essays & Studies* Vol. 31. London, 1978, pp.36-64.
- Frye, R.M. *Shakespeare and Christian Doctrin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67.
- Frye, Northrop. *Fables of Identit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3.
- Hunter, R.G. *Shakespeare and Comedy of Forgiveness*,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5.
- Iwaski, Soji. *Nature Triumphant : Approach to the Winter's Tale*. Tokyo : Sanseido Co. Ltd., 1991.
- Knight, G. Wilson. *The Crown of Life*. London : Methuen, 1982.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 Mahood, M.M. *Shakespeare's Wordplay*. London : Methuen, 1965.
- Marsh, D.R.C. *The Recurring Miracle*. Pietermaritzburg : Univ. of Natal Press, 1969.
- Milward, Peter.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Tokyo : Hokoseido Press, 1973.
- . *Christian Themes in English Literature*. Tokyo : Kenkyusha LTD., 1967.
- . *Shakespeare's Other Dimension*. Tokyo : The Renaissance Institute, 1987.
- Muir, Kenneth. *Shakespeare : The Winter's Tale*. Casebook Series, Macmillan, 1968.
- Noble, Richard. *Shakespeare's Biblical Knowledge*. London : The Macmillan Co., 1935.

- Overton, Bill. *The Winter's Tale*. The Critic Debate Series, Macmillan, 1989.
- Parker, M. D. H. *The Slave of Life*. London : Chatto & Windus, 1955.
- Pilgrim, Richard. *Your Precious Winners All : A Study of Shakespeare's The Winter's Tale*. Oxford : Becket Publications, 1983.
- Pyle, Fitzroy. *The Winter's Tale : A Commentary on the Structur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9.
- Schanzer, Ernest. "The Structural Pattern of 'The Winter's Tale,'" *A Review of English Literature* Vol. 5, No.2. 1964, pp.72-82.
- Tillyard, E. M. W. *Shakespeare's Last Plays*. London : Chatto and Windus, 1958.
- Tobias, Richard and Zolbrod, P.G. ed., *Shakespeare's Last Plays*. Athens, Ohio, 1974.
- Traversi, Derek. *Shakespeare : The Last Phase*.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55.
- Vyvyan, John. *The Shakespearean Ethic*. London : Chatto & Windus, 1959.
- Wind, Edgar. *Pagan Mysteries in the Renaissance*. New York : W. W. Norton & Co., 1948.
- Wordsworth, Charles, *Shakespeare's Knowledge and Use of the Bible*. London : Smith, Elder, & Co., 1880.
- The Old and New Testament : King James Version and Korean Revised Hankul Version* 서울 : 대한성서공회, 1985.

Summary

Biblical Influences on *The Winter's Tale*

Young-Keun Kwon

From the religious and ideological perspective of the Elizabethan period, the theme, plots, characters, techniques, ways of expression, ways of simile, and symbolism in Shakespeare's works can be sai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Bible. Because the conception of world order and the theological scheme of sin and salvation were for the Elizabethans a principal matter, Shakespeare described the characters in his works as persistently seeking an eternal life through the salvation of the human spirit. Along this lin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f the philosophy of Shakespeare himself, as well as the study of the Biblical influences on Shakespeare's themes, plots, characters, ways of expression, techniques, uses of simile and symbolism as reflected in *The Winter's Tale*. In addition, this paper deals, in particular, with the comparison of Shakespeare's philosophy of the salvation of the human spirit with that of the Bible.

The Winter's Tale deals, in spite of the pagan setting, with Christian salvation, reconciliation and a new life through repentance and God's forgiveness. *The Winter's Tale* presents us with more than moralistic world as the good are eventually rewarded and even the sinners forgive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is moralism indicates the Christian theology intended in the use of the classical gods and goddesses. We find characters who endure suffering and hardship after crime, either as punishment, as with Leontes or seemingly arbitrarily, as with Hermione and Perdita. But in *The Winter's Tale* suffering eventually receives reward, largely as a result of the human practice of the Christian virtues of patience, grace, mercy and forgiveness. *The Winter's Tale* ends of a peaceful note of harmony after confessions, reconciliations and reunions, in which the characters play tribute to the gods. The reunion of seperated characters and the climax in forgiveness and salvation are recognized as the consequence of God's grace and the hidden control of Divine Power.

In *The Winter's Tale*, Shakespeare utilized the biblical elements in order to achieve his goal of the salvation of man. In this play is underlying such biblical themes as commandment, mercy, temptation, atonement, sin, punishment, suffering, salvation, forgiveness, regeneration and new life. Eventually, Shakespeare, as a purposive artist, in this play,

sought for the rebirth of man as a new man, free of sin, and for the subsequent new life, full of peace, love and happiness, in the new world,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 21 : 1)